

韓 바이오·헬스가 투자 1순위 ... '중동 국부펀드' 관심집중

중기연구원, KOSI 중소기업 포커스 글로벌 자산규모 상위 10개 중 4개 아부다비·쿠웨이트 투자청 등 규모 커 주로 플랫폼·바이오·헬스 등 투자 K-유니콘 프로젝트 기업과 유사 벤처 활력위해 초기단계 육성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국민방문을 계기로 중동 국부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바이오·헬스 분야가 이들 펀드로부터 선택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병원시스템, 의료기기, 바이오 의약품 관련 기업들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스타트업이나 유니콘 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한국의 소비기반 플랫폼들은 작은 내수시장 등의 이유로 확장성이 크지 않아 국부펀드가 관심을 갖기엔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내 소비기반 플랫폼은 인도, 동남아, 중앙아시아 등을 목표로 창업 초기 단계부터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17일 펴낸 'KOSI 중소기업 포커스-중동 국부펀드의 투자 성향과 국내 벤처투자 유치 가능성 진단' 보고서에서

〈자산 규모 상위 10대 국부펀드(2022.12월 기준)〉

순위	국부펀드	국가	자산 규모		설립 연도
			자산(달러)	전체 대비(%)	
전체	174개		11조 3580억	100%	-
1	중국투자청(CIC)	중국	1조 3510억	11.9%	2007
2	노르웨이중앙은행투자관리청(NBIM)	노르웨이	1조 1450억	10.1%	1997
3	아부다비투자청(ADIA)	UAE	9930억	8.7%	1967
4	중국외환관리국(SAFEIC)	중국	9800억	8.6%	1997
5	쿠웨이트투자청(KIA)	쿠웨이트	7690억	6.8%	1953
6	싱가포르투자청(GIC)	싱가포르	6900억	6.1%	1981
7	사우디공동투자펀드(PIF)	사우디아라비아	6200억	5.5%	1971
8	홍콩통화청(HKMA EF)	홍콩	5000억	4.4%	1993
9	국가사회보장펀드(NSSF)	중국	4740억	4.2%	2000
10	카타르투자청(QIA)	카타르	4500억	4.0%	2005

자료: <https://globalswf.com/rankings/> 재가공 (2023.1월 9일 접속)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동의 국부펀드들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국내외 벤처투자 규모가 크게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투자를 늘려왔다. 특히 앞으로도 중동 경제가 호황을 지속할 것으로 보여 이들 펀드의 투자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 전망이다.

이때문에 국내 벤처투자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선 중동 국부펀드를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중기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글로벌 국부펀드 174개의 총 자산

규모는 11조3580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중동 지역 27개 국부펀드의 자산규모는 4조1400억 달러로 전체의 36.5%를 차지했다.

특히 글로벌 국부펀드 자산 규모 상위 10개 중 4개가 중동 국부펀드들이다. 아부다비투자청(ADIA), 쿠웨이트투자청(KIA), 사우디공동투자펀드(PIF), 카타르투자청(QIA)이 대표적이다.

상위 1·2위에는 중국투자청(CIC), 노르웨이중앙은행투자관리청(NBIM)이 이름을 올렸다.

연구원은 중동 국부펀드들의 벤처투자 성향을 분석하기 위해 카타르투자청(QIA), 무바달라투자회사, 아부다비국영지주회사(ADQ)를 살펴봤다.

이유진 연구원은 "중동의 국부펀드들은 주로 소비기반 플랫폼과 바이오·헬스케어, 핀테크 산업에 집중해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플랫폼의 경우 내수시장이 큰 인도, 경제적 동맹을 위해 다수의 벤처 협약을 체결한 터키, 영미권 국가를 중심으로 투자가 이뤄졌고, 바이오·헬스케어와 핀테크는 영미권과 유럽에 집중해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분석 결과 한국 정부가 K-유니콘 프로젝트를 통해 육성하고 있는 아·에비 유니콘기업의 산업 분포가 중동 국부펀드들의 관심 분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중동 국부펀드는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초기 단계의 투자를 선호하는데 해당 산업엔 한국의 아·에비유니콘 기업이 다수 포진돼 있어 중동의 투자 성향과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특성이 가장 잘 매칭된다"면서 "한국의 병원 시스템, 의료기기, 바이오 의약품의 중동 진출도 증가하고 있어 이들 분야는 중동에서 한국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분야"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동 국부펀드가 우리의 바이오·헬스케어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집중 공략하되, 투자 성향을 지속적으로 살펴 보면서 다른 분야까지 투자유치를 확대하는 전략이 주효할 것이라 판단이다.

아울러 중동 국부펀드들은 기업공개(IPO) 이전인 '프리(Pre)-IPO' 단계 투자를 선호하는 성향이 있어 시리즈 C~E+ 단계에 있는 예비 유니콘 기업들이 투자대상으로 가장 적합하다는 분석이다.

연구진은 "정부는 창업 초기 단계부터 해외시장을 목표로 하는 '본 글로벌'(Born-Global) 소비기반의 플랫폼 유니콘을 적극 육성하고 중동 국부펀드와 조인트벤처(JV)를 조성해 중동 투자 리스크를 분담해야 한다"면서 "정보 부족과 문화·종교·언어 차이 등의 이유로 중동 국부펀드가 한국 투자를 꺼리고 있어 민간 협력으로 컨퍼런스를 통해 기업간 인적, 문화적 교류를 정례화하는 동시에 중동 국부펀드별 투자 성향을 고려해 한국 벤처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부펀드'란 국가가 국가의 자산을 운용하기 위해 설립한 투자 펀드로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와 한국은행의 위탁자산을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KIC)가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UAE와 원자력 확대, 넷제로 협력 강화

한전-UAE 원자력공사 넷제로 가속화 전략적 협력서 서명

한국전력공사는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공사(ENEC)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안보를 위해 원자력을 확대하고 및 넷 제로(Net-Zero) 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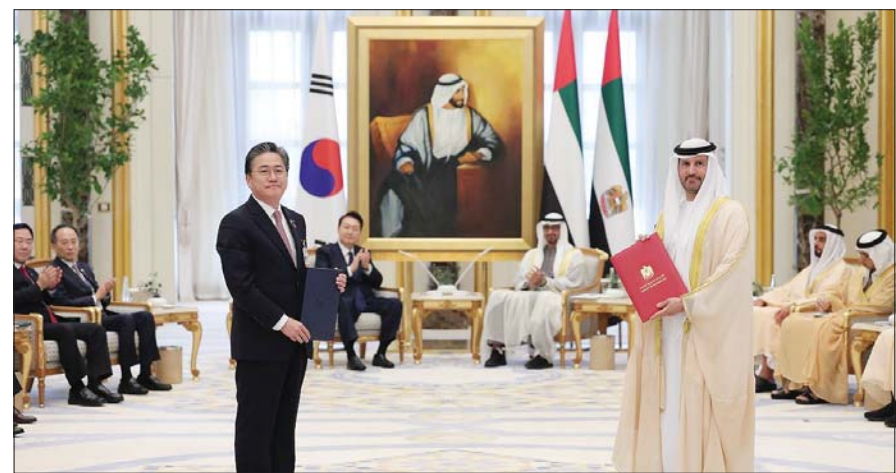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민방문에 동행한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17일 수출원전 UAE 바라카 원전과 관련 "세계 원전 산업계가 주목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성공적

인 사업 완수를 위해서는 안전과 품질 관리에 최우선으로 노력해달라"며 안전·품질 관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앞선 15일에는 UAE 아부다비에서 양국 정상에 임석한 가운데 정승일 한전 사장과 모하메드 알 하마디 ENEC 사장은 '넷 제로 가속화 전략적 협력서'에 서명했다. 이후엔 실질적인 협력 이행을 위해 양사의 역량과 지혜를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양사는 그동안 유지해 온 원자력 협력관계를 심화하는 차원에서 협력서를 기반으로 한국과 UAE의 원자력 프로그램 확대 및 글로벌 원전시장 공동개발에 나선다.

또, 글로벌 전력회사인 한전의 강점을 활용해 인접국과 전력망 연계를 위한 슈퍼그리드 공동 연구개발 등 새로운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한다. 나아가 수소, 암모니아, 녹색인증제도 등 청정에너지사업에서도 협력해 양국 모두 미래지향적인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기반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한전은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 수출사업인 UAE 원전사업을 수주했다. 지난 10여년간 UAE 원전을 건설하며 다져온 양사간의 파트너십을 토대로 2018년 한-UAE 양국간 관계를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가교역할을 해왔다. 한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왼쪽)과 모하메드 알 하마디 UAE 원자력공사 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전은 이번 '넷 제로 가속화 전략적 협력' 합의 역시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UAE 바라카 원전은 지난

2009년 12월 한전이 수주한 최초의 수출원전으로 향후 4호기까지 모두 가동되면 UAE 전력수요의 25%를 담당할 전망이다. /허정원 기자 zelkova@

반도체 패키징 미세화·대형화 추세에도 대응 가능

» 1면 '유리기판에 목숨 건다'서 계속

하지만 AI, 자율주행 등 신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컴퓨팅용 반도체 기술에 대한 니즈도 증가하는 추세다.

SKC는 이에 초점을 맞췄다. SKC는 애플리케이션을 필두로 반도체 글라스 기판을 시장에 처음 선보였다. 앞서 반도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박 대표는 "반도체 시장이 불경기인데도 한계에 봉착했다. 기술들이 고성능화 됨에 따라 반도체도 고성능으로 변하고 있는 추세다. 현지 불경기인 이유는 가격의 문제도 있지만 대체할 반도체가 없기 때문"이라며 "과거 세계 파

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인 대만의 TSMC에 종속된 것도 같은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한계에 부딪혔지만 반도체 시장은 보수적이기 때문에 대기업들도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 이에 SKC가 애플리케이션을 필두로 움직인 것"이라며 "유리를 쓴다는 생각은 아무도 안한 것 같다. 한국에서 처음 반도체에 유리를 썼었다. 유리는 열에 강하다. 이에 전류가 과하게 흐르지 않아 화재 같은 위험 리스크도 없다. 또 깨지지 않는 강화유리를 사용한다"며 글라스 기판의 장점을 설명했다.

박 대표는 해당 기술을 구현해 내는데 2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그는 "2년을 숨어서 개발해 냈다. 세계에서 최초로 만들어 낸 것"이라며 "양산하고 내년 중순부터는 쉬핑을 시작할 것"이라고 계획을 설명했다.

또 "난 CEO라 돈을 얼마나 버는지가 중요하다. 이는 돈을 벌게 해주는 사업이다. 글라스 기판의 퍼포먼스가 어느정도 클지 두고봐라.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더욱 확장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애플리케이션 반도체 글라스 기판은 사각패널을 대면적으로 만들 수 있어 반도체 패키징 미세화는 물론, 대형화 추세에 대응이 가능하다. 중간기판이 필요 없어 두께가 얇고 전력 효율을 높여 대용량 데이터의 빠른 처리와 저전력이라

는 시장의 니즈를 해결한다.

또 MLCC 등 반도체 소자를 기관 내부에 넣어 표면에는 더 큰 CPU, GPU를 장착하고 더 많은 메모리를 넣을 수 있어 같은 면적으로 더 고성능 패키징을 만들 수 있다.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을 용산구 소재의 한 대규모 인터넷 데이터센터(IDC)에 반도체 글라스 기판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면적은 5분의 1로, 전력 사용량은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리케이션 미국 조지아주 생산공장

SKC의 반도체 글라스 기판사업자 회사 애플리케이션이 9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의 생산공장 건설현장과 글라스 기판의 실물을 언론에 공개했다.

애플리케이션은 지난 11월 착공식을 열고 조지아주 커빙턴시의 SKC inc. 부지 내에 생산공장을 건설 중이다.

애플리케이션 생산공장 건설 현장을 찾았다. 드넓은 부지로 황량하다는 느낌까지 들었던 SK의 다른 공장들과는 다르게 애플리케이션 생산공장은 광활하면서도 안락한 느낌을 자아냈다. 그도 그럴것이 조지아 주는 일년 내내 초가를 날씨를 유지하면서 허리케인이나 집중폭우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으로 반도체 생산 공장을 구축하기에는 최적의 장소다. 해당 공장을 통해 SKC는 세계 최초의 글라스 기판 상업화를 확대시킬 전망이다.

현재 골조 공사 단계인 애플리케이션 생산공장은 연산 1만2000㎡ 규모로 2억 4000만 달러를 투자, 2024년 완공이 목표다. SKC와 애플리케이션은 3억 6000만 달러의 2단계 투자를 통해 생산능력을 연산 7만2000㎡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빛나 기자 vitna@